

조계사 새벽예불 동참자 위한

‘도(道)로 가는 버스’ 동승기

새벽 외출? 이유가 있지~

출 퇴근하는데 보통 1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수도권에서 새벽 예불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은 ‘의외로’ 많지 않다. 새벽 4 시경에 대중교통을 이용해 사찰에 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 마음 편하게 새벽외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도(道)로 가는 버스’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주지 원담)는 올해 하안거를 맞아 5월 12일부터 100일간 진행되는 ‘원담 스님과 함께 하는 새벽기도’ 동참자들을 위한 버스를 배차 운행하고 있다. ‘원담 스님과... 기도’는 제방에서 정진하고 있는 스님들의 구도 열정을 배우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버스노선은 의정부·상계, 구리·중랑, 분당·잠실, 송파·강남(2), 관악·남대문, 철산·마포, 부천·강서, 양천·신촌, 일산·구파발, 서대문, 평촌·안양 등 12곳이다.



30년이 넘게 조계사를 다니고 있는 김기일거사는 팔순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100일간의 새벽기도를 통해 스스로 변하고 싶다”는 바람을 표했다.



조계사 일주문 앞에 도착한 신도들이 버스에 내리고 있다.

“새벽예불, 마음만 굴뚝같았는데...”
5월 18일 새벽 3시, 부천과 서울 강서 지역 신도들을 태우러 온 버스가 부천시 소사역에 도착했다. 잠시 후 김기일(80·경기도 부천시 소사동) 거사가 첫 번째 승객으로 버스에 오른다. 30여년 전부터 조계사에 다니고 있는 ‘목은’ 신도지만 올 봄 조계사 불교대학에 등록한 늦깎이 ‘학생’이다. 김거사는 “사람이 마련해준 버스를 타고 100일 동안 새벽예불을 올리면 나에게 많은 변화가 올 것이라 믿는다”며 맨 앞자리에 앉았다.
신정네거리에서 버스에 탄 박복경(36·서울시 양천구 신정4동)씨는 새벽예불이 처음이다. 평소 기도에 동참하고 싶었지만 4시 30분까지 조계사에 도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 없어서 망설여왔다. 박씨는 “지하철로 가더라도 조계사까지는 1시간 이상이 걸린다”며 “‘도로 가는 버스’ 덕분에 마음만 굴뚝같았던 사람들이 새벽예불에 동참하고 있다”며 환하게 웃어 보였다.
화곡역에서 두 딸 최현주·수경씨를 데리고 버스에 오른 박천대(64·서울시 강서구 화곡동)씨는 “이렇게 편안하게 예불을 올리면 둘째와 셋째 딸이 조만간 결혼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한다.
신도들이 하나 둘 자리를 잡으면서 어느새 버스 안에는 20여명의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사람들이 버스에 오를 때마다 주고받는 인사도 자연스럽다.
새벽 3시 25분 부천을 출발한 버스는 어느새 역

곡역, 신정네거리역, 화곡역, 강서구청, 마포고등학교, 마포구청 등을 거쳐 4시 20분에 조계사 일주문 앞에 도착했다.

“100일 기도 후에도 계속 운행해 주세요”

일주문 앞에서는 조계사 교무국장 석연 스님과 재무국장 원경 스님이 신도들을 맞이하고 있다. 석연 스님은 “바쁜 일상생활 때문에 새벽이나 저녁에

보문품>은 조계사가 이번 100일 기도를 위해 한글로 풀어 독경집으로 엮은 것이어서 신도들은 어렵지 않게 독경에 동참한다.

100일 기도 중의 7일째였던 이날 기도는 이렇게 끝났다. 예불에 참석한 불자들의 일부는 자리를 계속 지키며 경전을 보거나 절을 했다.

예불이 끝나자마자 자리를 정리한 진정희(51·서울시 양천구 목2동)씨는 “남편 출근과 아이들 등

의정부·안양·부천 등 12곳 100일간 운행 새벽 4시 30분 법당도착, 예불·기도 후 6시 귀가 “매일 버스 타며 밝은 삶·행복한 가정 발원”

절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동안 사람이 이런 신도들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는 데는 많이 인색했다”며 “신도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4시 30분부터는 대웅전에서 본격적인 새벽예불이 계속됐다. 조계사 주지 원담 스님을 비롯한 사중 스님들과 신도 150여명은 경건한 모습으로 <반야심경>을 봉독하고 절을 한다.
예불에 이어 <천수경>을 봉독하고 축원기도와 <관세음보살 보문품> 독경, 석가모니불 정근을 계속 하니 시간은 어느덧 6시가 다 됐다. <관세음보살

교를 챙겨야 하기 때문에 바로 자리에서 일어났다”며 “100일 기도 이후에도 신도들을 위해 버스를 운행해 줘서 좋겠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예불 후 신도들을 배웅하던 원담 스님은 “신도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것”이라며 “조계사의 이번 버스 운행이 다른 도심사찰들에게도 좋은 모범 사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새로운 하루를 참불자의 마음으로 열어 주는 새벽예불. 불자들은 이렇게 하루하루의 새벽예불을 통해 신심 향상의 빛을 보고 있었다.
글=유철주 기자·사진=박재원 기자



수도원에서 온 신도들이 대웅전에서 스님들과 함께 선 아삼경>을 봉독하고 있다.



새벽기도에 동참한 신도들의 표정이 진지하기만 하다.

청운 스님 진품 달마도

귀의 삼보 하유고
청운 스님께서 직접그리신 달마도는 오랜 정진을 통한 선(禪)기가 녹아 있습니다.
달마도는 인간의 근본 마음을 밝혀줌으로써 삶의 모든 어두운 불행의 기운을 사라지게 만들어 밝고 행복한 삶으로 바뀌어줍니다.
청운스님의 영적 힘을 가진 진품 달마도를 소장하시고 소원성취도 이루십시오.

나무판세움보살

※ 달마도(그림) 구매 가능합니다. 각 호수를 불러주세요. 10점 이상 구매시 사찰명을 새겨 드립니다.

달마	관음	지장	소원성취	건강부	사고반지

달마카드
소재: pp금장 물마도
부착카드
규격: 50mm x 75mm
50점 이상 주문시 사찰이름을 새겨드립니다.

달마 3호-그림: 30x40cm 달마 4호-그림: 40x50cm	달마 6호-그림: 35x45cm 액자: 47x64cm	달마 8호-그림: 35x68cm 액자: 47x88cm	달마 10호-그림: 45x75cm 액자: 58x94cm

• 구입문의 : 불교용품 전문기획 달마 SHOP 051)851-5535 입금계좌 : 농협 949-02-315451(정정애)